

2013년 국가직(7.27.) 정답 및 해설[재책형]

○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③
6. ①	7. ④	8. ③	9. ②	10. ③
11. ②	12. ④	13. ②	14. ①	15. ①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②

○ 분석 및 해설

문 1. 법흥왕

백관 공복 제정과 금관가야 정벌을 통해 법흥왕을 묻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복색, 관등제, 골품제 등을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건원' 연호를 사용하였다.

오답피하기

② 지증왕, ③ 신문왕, ④ 진흥왕의 업적이다.

정중!

기본서 p.63에 동일 사료가 실려있으며, 본문에 같은 내용이 정확히 실려 있다.

사료&자료 가야의 멸망

*법흥왕 19년(532) 금관국주 김구해가 비(妃) 및 세 아들, 즉 맏아들 노중 둘째 아들 무덕 셋째 아들 무력과 함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니, 왕은 이들을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의 지위를 주어 그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무력은 조정에 벼슬하여 각각까지 이르렀다.

문 2. 6월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로 4.19 혁명과 6월 민주화 운동 중 출제가 예상되었다. 주어진 자료가 워낙 많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 9차 개헌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9차 개헌에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적중!

기본서 p.563의 6월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과 9차 개헌 사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과

- ①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의 폭로로 박종철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직선제 개헌 요구가 맞물리며 전국적 시위가 전개되자 정부는 '4·13 호헌 조치'를 통해 개헌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 ② 이에 대해 범국민 대회가 개최되고 6·10 항쟁(박종철 고문 사건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을 준비했는데 6월 9일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6·10 시위는 절정에 이르렀다.
- ③ 결과: 정부는 6·29 선언을 발표하고 제9차 개헌을 약속하였다.

사료&자료 6월 민주 항쟁과 제9차 개헌

1. 6·10 대회 선언문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아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신동아 편집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 민주 운동』

2. 6·29 선언(1987)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환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의 여타하였던 간에 감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9차 개헌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9차 개헌은 제3차 개헌 이후 또 한 번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개헌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전국적 민주화 운동에 부딪힌 정부 여당은 결국 노태우 차기 후보를 내세워 6·29 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실시하였다.

문 3. 세계 문화 유산

올해 세계 문화 유산 지정이 추가로 이루어진 만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주제였다. 직지심체요절의 경우,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한 것으로 병인양요 때 약탈한 것이 아님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중!

보조 자료인 문화재 사전에 선지와 같은 문구로 정리되어 있다.

종묘

-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
- 정전과 영녕전의 기단과 처마, 지붕의 높이, 기둥의 굵기를 위계에 따라 달리함

조선왕조실록

- 편찬 : 훈추관(실록청) 담당, 사초·시정기 참고
- 보관 : 4대 사고(훈추관·충주·성주·전주), 5대 사고(훈추관,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 연산군·광해군·고종·순종은 실록에서 제외됨

문 4. 고려의 경제

해동통보와 활구의 유통을 보고 고려 시기임을 유추하여 풀 수 있다. 고려 시대를 묻기 위해 주로 거론되는 특징들로, 관영 상점의 존재, 보(寶)의 존재, 충선왕 때의 소금 전매제 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대동법 실시 이후, ② 정조 때 통공 정책 이후, ④ 신라 지증왕때의 모습이다.

정중!

기본서 p.178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세 대담 장인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자기자본으로 공물을 대납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몇 배로 받아내 그 차액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거나 관리로 성장하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생겨났다.

활구(은병)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로 은병 하나의 값은 100여 필이나 되었다.

대 만대에 주짓여 국중 5원(1102)에 다임과 주검, 금적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② **속중** : 의천의 건의를 계기로 화폐를 다시 사용하였다. 해동원보(海東元寶)·해동통보(海東通寶)·해동중보(海東重寶)·삼한통보(三韓通寶)·삼한중보(三韓重寶) 등을 만들었다. 또한 활구(關口)라는 은병(銀瓶)도 유통하였다. 은병은 고액 거래 수단으로 썼기에 소은병, 쇠은, 은전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고려 말까지 끊임없이 사용되었다.
- ③ **공양왕** : 방사량의 건의로 최초의 지폐인 저패를 발행하였으나 정치 격변으로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고 조선 초에 가서야 다시 시도되었다.

사료&자료 화폐의 유통

내(목중) 선대의 조정에서는 이전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서 조서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니 수년 만에 돈궤미가 창고에 가득 차서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선대의 조정을 이어서 전폐(錢幣·돈)는 사용하고 추표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국가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갓 백성들

- ㉠ 관영 상점 : 큰 도시에는 서적점, 약점, 주전, 다점 등 관영 상점을 설치하였다.
- ㉡ 경시서(京市署) : 개경에 설치하여 상행위의 감독과 물가를 조절하였다.

문 5. 장시와 보부상

자료는 보부상의 활동을 보여주는 민요이다. 장시는 15세기에 출현하여 16세기 이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장시에서 활약한 상인들이 보부상이다. 문제에서 조선 전기를 묻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통보는 세종 때 발행하였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적중!

기본서 p.252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장시의 등장과 발전을 사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 ① 장시의 성장 : 15세기 후반 등장하여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보부상 중심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다.
- ③ 화폐 : 저화와 조선통보 등이 있었지만, 농민은 쌀과 무명 등을 사용하였다.
- ④ 무역 : 명과는 공·사무역이 행해졌고, 여진과는 무역소를 통한 교역을 하였으며, 일본과는 왜관 중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사료&자료 조선 전기의 상업

- *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갓끈·빗·마늘·분(粉) 같은 물품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 『세종실록』
- * 경인년(1470년) 흉년 때 전라도 백성들이 서로 모여들어 점포를 열어 장문(場門 : 시장)이라 칭하고, 사람들이 이에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하였다. - 『성종실록』
- *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은 정해진 곳 없이 교역으로 생활하는 것이 마침내 풍속이 되었다. …… 각 읍에서 장사가 서는 것이 적어도 3~4곳이 되어 …… 한 달 30일 이내에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 없다. - 『선조실록』

문 6. 갑오개혁

최근 대입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로서, 갑오개혁의 1차~3차 내용을 묻는 문항이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다. 자료는 최근 대입 시험 기출 자료로, 김홍집이 총재가 된 기구가 군국기무처임을 파악하여 1차 개혁의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이다.

오답피하기

② 흥선대원군의 정책, ③ 광무개혁기, ④ 2차 개혁 때의 내용이다.

적중!

기본서 p.405~407에 갑오개혁의 전개 과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료&자료 갑오·을미개혁의 주요 내용

제1차 개혁(1894. 6)

- * 정치 : 개국연호, 왕실·정부 사무 분리, 과거제 폐지, 경무청 설치, 6조 → 8아문
- * 경제 :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조세 금납화, 은본위제, 도량형 통일, 왕실·정부 재정 분리
- * 사회 : 신분제 폐지(노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재가 허용, 고문·연좌제 폐지

제2차 개혁(1894. 11)

- * 정치 : 7부(중앙)·23부(지방) 설치, 사법권 독립, 지방관 권한 축소 군사면에서 일본의 견제로 미비(훈련대·시위대 각 2대대 설치)
- * 경제 : 탁지부 산하에 관세사·징세사 설치
- * 사회 : 교육 입국 조서 반포 → 관립 학교 설립, 근대적 교과서 제도 마련

제3차 개혁(을미개혁, 1895. 8)

- * 정치 : 태양력 사용, 건강 연호, 친위대(중앙)·진위대(지방) 설치
- * 사회 : 단발령 실시, 종두법 실시, 우편 업무 재개

문 7. 통일신라의 경제 정책

위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므로 익숙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가)는 신문왕이 녹읍을 혁파하는 내용, (나)는 경덕왕 때 녹읍이 부활되는 내용을 보여준다. 신문왕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6두품이 왕의 조연자로서 활약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법흥왕, ② 신라 상대, ③ 신라 하대의 상황이다.

정중!

기본서 p.110에 동일한 사료와 함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사료&자료 토지 제도

1. 통일 신라의 토지 정책

- * 신문왕 7년(687) 5월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 신문왕 9년(689) 1월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 성덕왕 21년(722) 8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 경덕왕 16년(757) 3월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 소성왕 원년(799) 3월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 『삼국사기』

문 8. 향약

자료는 율곡의 해주향약에 대한 것이다. 향약은 향촌 사족들이 만든 규약으로, 농민들을 반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삼강오륜의 윤리 내용이 들어가지만 전통적 미풍양속을 가미하였으며, 후에 백성을 수탈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③은 향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중!

기본서 p.273에 동일한 사료, 동일한 내용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 ③ 결과 : 풍속 교화에 이바지하였고, 치안 담당·농민 통제 등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 ④ 폐단 : 지방 사립의 지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토호·향반의 주민 수탈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료&자료 해주 향약 입약 범례문

무릇, 뒤에 향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 히 적어서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 『율곡전서』

문 9. 노비

외거노비에 대한 문제이다. 자료의 평량은 주인과 떨어져 사는 외거노비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평량과 평량의 처 모두 사노비이므로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했다. 관련 사료를 분석하면서 노비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매우 익숙하게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적중!

기본서 p.184에 동일한 사료를 제시하고 분석한 바 있다.

자료&자료 노비의 신분 상승

평량은 평량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에 바쳐 천인에게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위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차남과 함께 원지의 부처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 『고려사』

⇒ 외거 노비는 주인과 독립된 경리를 가질 수 있었다.

문 10. 화폐 정리 사업

1905년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은 전한국에서 발행하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본위제가 채택되었으나, 부등가 교환, 고시기간 부족 등으로 한국 상인과 금융업이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백동화는 주조방식이어서 악화가 많았고 물가 상승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업을 통해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적중!

기본서 p.438~9에서 유사자료를 제시하고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일은행

개항 후 조선에 제일 먼저 진출한 은행으로 일찍부터 조선의 재정 자금을 이용하면서 상업 자금을 취급하여 수익을 올렸다. 1878년 부산에 지점을 개설한 이후 1880년 원산, 1882년 인천, 1888년 경성에 각각 출장소를 개설하고 지점으로 승격시켜 나가는 등 영업망을 확충해갔다. 1884년 필렌도르프와 해관세 취급 조약을 체결하여 이후 조선의 개항장에서 해관이 징수하는 관세 수수료, 벌금 등을 거의 모두 취급했고, 1906년 화폐 정리 사업 때 백동화를 정리하고 은행권을 발행하며 조선의 중앙은행으로 공인되었다. 1906년 식민지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의 독자적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설립이 시도되면서 경성과 부산의 두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점을 한국은행에 인계한 후 폐쇄되었다.

차관이 급증하였다.

(2) 화폐 정리 사업(1905. 6.)

- ① 배경 : 대한 시설 강령을 통해 금융 장악을 계획한 일본이 재정 고문 메가다를 파견하여 주도하였다.
- ② 내용 : 조선의 구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토록 하였다.
- ③ 결과
 - ㉠ 백동화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부등가 교환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 ㉡ 시중 통화량 부족으로 경제, 상업 등에 영향이 생기고 물가가 하락하였다.
 - ㉢ 한국인에게만 고시 기간이 부족하여 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계층이 다수 몰락하였다(상인, 금융 기관).
 - ㉣ 차관 도입이 급증하였고 대한 제국의 재정이 일본에 예속되었다.
 - ㉤ 국제 구리 시세가 높아 일본은 구 엽전과 백동화 수거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았다.

자료&자료 화폐 정리 사업

*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각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중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중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 탁지부령 제1호(1905. 6.)

*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함은 실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경성 상업 회의소 의원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

⇒ 화폐 정리 사업은 충분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갑자기 실시되었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인과 금융 자본가들의 피해가 매우 컸다.

문 11. 여러 나라의 성장

(가)는 동예의 책화, (나)는 옥저의 가족 공동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피하기

① 부여에 대한 설명이며, ③ 옥저와 동예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④ 대가들은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층이다.

정중!

기본서 p.46~47에서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다.

① 옥저

- ㉠ 민며느리제 :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 가족 공동 무덤 :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목곽에 안치하였다.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 향아리를 매달아 놓았다.

② 동예

- ㉢ 제천 행사 :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개최되었다.
- ㉣ 족외혼 : 씨족 사회의 전통인 족외혼의 풍습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 ㉤ 가족 중 한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곧 살던 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옮겨갔다.
- ㉥ 책화 :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였다.
- ㉦ 주거지 : 대개 철(凸)자형·여(凹)자형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문 12. 영조의 업적

영조와 정조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왕이다. 탕평책을 실시했던 두 군주의 정책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시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을 펼친 왕은 정조이다. 영조는 완론 탕평을 구사하였다.

정중!

기본서 p.321~322에 내용이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다.

- ③ 민생 안정과 문물 정비 : 탕평책의 실시로 정국이 안정되자,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역법을 시행하고, 『무원록』을 편찬하였다.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신문고를 부활시킴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속대전』, 『속오례의』,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 사회 질서 정비를 위해 금주령을 내리고 사치를 금했으며, 노비종모법을 시행하고 노비의 신공을 감면해 주었다.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청계천 유로를 변경하고 준천 작업을 실시했다.
- ④ 한계 : 봉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봉당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이었다. 또 소론 강경파의 저항(이인좌의 난, 나주 패서 사건 등)과 사도 세자의 죽음(임오화변)을 계기로 소론이 숙청되고 노론의 일당 전제가 지속되었다.

(2) 정조(1776~1800) - 준론 탕평(峻論 蕩平)

- ①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사도 세자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시파와 벽파 간의 갈등을 경험한 정조는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각 봉당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이 시행되었다.

② 정조의 정치

- ㉠ 완권 기반 강화

문 15. 사림

사림은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로, 15세기 향촌에서 사학을 통해 성장한 (예비)관료군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들은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왕도정치를 주장하고 성종 이후 3사 연관직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였다. 사림은 재야에서 여론을 주도하던 세력을 일컫는 말로, 이들의 공론이 중시되는 것은 봉당정치기 이후의 일이다.

적중!

기본서 p.239~240에 문제와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다.

(2) 사림

- ① 출신 : 고려 말 정몽주, 길재 등 온건 개혁파 사대부를 계승한 세력으로 주로 영남 일대에 자리 잡았고, 점차 기호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 ② 경제적 기반 : 주로 향촌의 중소 지주 출신이다. 이들은 훈구의 대토지 소유를 비판하였다.
- ③ 학풍 :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경학(經學)을 강조하였다. 도덕과 의리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성리학을 고집하여 가자를 강조하는 등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화이 사상). 이런 토대 아래 사림은 패도 정치를 배격하였으며, 왕도 정치에 기반한 향촌 자치를 주장하였다.

(2) 사림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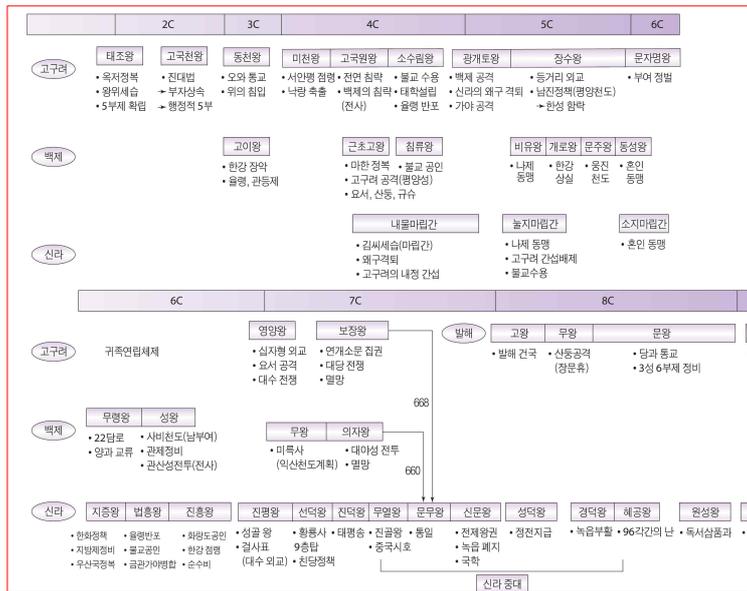
- ① 훈구 세력 견제
 - 성종 대에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은 정계에 진출하여 주로 전랑과 3사에서 언론을 담당하며 훈구파의 전횡을 견제하였다.
 - 세조 이후의 지나친 부국 강병책, 내수사를 통한 왕실의 부 축적, 왕실 주도의

문 16. 삼국의 항쟁

백제 근초고왕의 고구려 평양성 공격이 4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남진이 5세기, 신라 진흥왕의 대가야 정복이 6세기,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빼앗은 것이 7세기이다. 삼국의 관계사를 묻는 문제로서는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적중!

기본서 p.56~65에 정리되어 있다. 기초 입문반 교재 p.20에서는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였다.



문 17. 호락논쟁

18세기 노론 내부에서 일어난 호락논쟁은 심성론에 기반하고 있다. 호론은 충청 노론으로, 한원진을 중심으로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고, 서울 경기 노론들은 이간을 중심으로 낙론을 형성하여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였다. 인물성 이론은 양이론에 기반하여 위정척사 사상으로 계승되었고, 인물성 동론은 북학, 실학, 개화 사상 등에 영향을 주었다.

정중!

기본서 p.372에 정리된 내용과 동일하다.

호락논쟁		
구분	호론	낙론
내용	인물성이론	인물성동론
지방	충청도	서울 경기
학자	한원진	이간
계승	위정척사	북학 사상

① 초기 :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 문인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간은 인물성 동론을, 한원진은 인물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이 때 권상하가 한원진을 지지하여 충청도 지방의 노론은 인물성이론으로 통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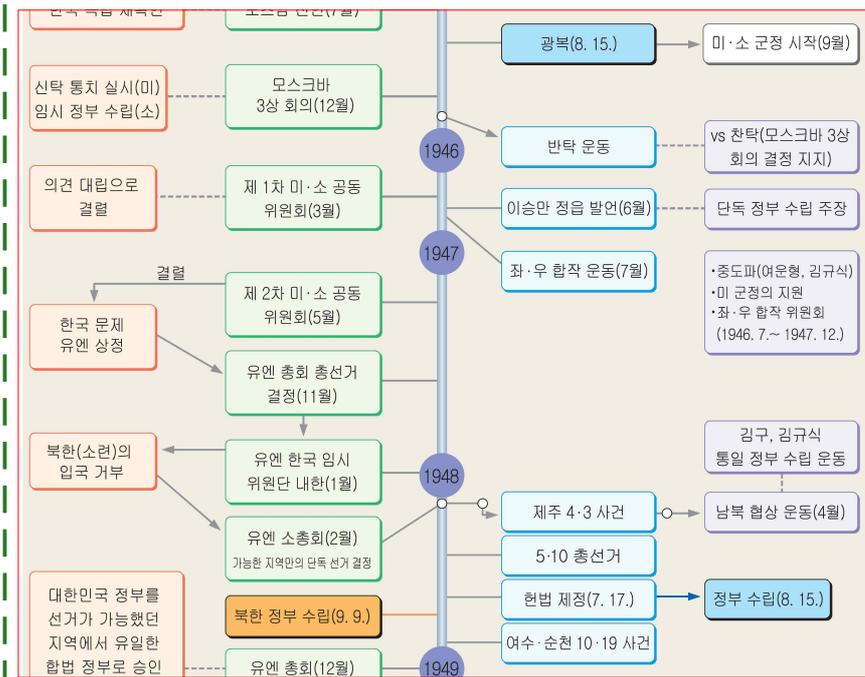
② 확대 : 김창흡·박필주 등 서울·경기 지역의 노론이 인물성이론에 동조하여 지역적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인물성이론을 주장한 충청도 지방의 노론을 호론이라 하고,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서울 지방의 노론을 낙론이라 한다.

문 18. 광복 이후 국가 수립 과정

광복 이후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 속에서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항이다.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은 1941년에 제정되었고,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9월 9일에 수립되었다. 남북 협상은 UN소총의 수정 결의에 대한 반발로 5.10 총선거 전에 이루어졌으며, 정부 수립 직후 제헌헌법 규정에 따라 반민법, 농지개혁법 등이 제정되었다.

정중!

현대사 전체의 흐름을 교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서 p.546에 연표로 정리되었다.



문 19. 삼국유사

자료에 제시된 역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원간섭기에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려 편찬한 이 책에는 단군 신화가 실려있다.

오답피하기

① 이제현의 사략, ② 김부식의 삼국사기,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합당한 설명이다.

정중!

동일한 자료와 내용이 기본서 p.197에 정리되어 있다.

① 『삼국유사』(일연, 1281)

- ㉠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신화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 고조선 계승 의식에 입각해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하였으며, 삼국 가운데는 신라 계승을 강조하였다.

자료&자료 『삼국유사』에 나타난 역사 의식

제왕이 정차 일어나려 하면 부명을 받고 도록을 받는 등 반드시 사람들과 틀린 점이 있다. 그런 연후에야 변화를 타고 천장자의 지위를 장악하며 제왕의 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음이 어찌 이상하겠는가. 이 책의 첫머리에 기이편을 씌는 까닭이다. - 『삼국유사』

문 20. 정도전의 재상정치론

자료는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정치론이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재상에게 정치를 맡기게 하자는 논리로,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조선 왕조에서 구현되었다.

정중!

기본 입문반 교재 p.57에 동일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기본서에도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3. 정도전의 재상 정치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모든 관리를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자리이니, 그 직책이 매우 큰 것이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것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